

평창·진부장례식장 접객실 ‘입식’으로 새단장

✎ 우정연 기자 | ⌚ 승인 2024.05.31 17:12

2000만원 투입...조문객 편의 극대화



장례식장 접객실 입식으로 새단장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평창·진부장례식장의 접객실을 모두 ‘입식’(의자식)으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2000만 원을 투입해 올 1월부터 5개월에 걸쳐 좌식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갖춘 입식 접객실로 전환했다.

최근 수도권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장례식장이 입식으로 전환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공단도 유족과 조문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같이 바꾸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장례식장 입식 전환 후 남은 테이블은 경로당 등에 기증했다.

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과 조문객이 더 개선된 환경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했다”며 “방문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인 시설물 관리로 복지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연 기자 wooj2705@naver.com